

'26. 4. 17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미 주

- 美, 뉴욕시장 관저 앞 폭탄테러 용의자 최대 60명 살해 계획
 - 4.9 언론은 지난달 7일 뉴욕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폭탄을 던진 용의자들이 치밀한 범행 준비를 하는 등 다수의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는 구체적 범행 계획이 드러났다고 보도
- 美, 충격범 제압용 드론시스템 개발
 - 4.12 언론은 미국 방산 스타트업이 드론으로 충격범을 제압하는 학교 보안 시스템*을 도입했으나, 효과 기대와 함께 무력 남용 및 예방보다 사후 대응 치중 등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
 - * 평소 천장 박스에 매립된 드론은 충격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해 사이렌과 섬광으로 범인의 시야를 차단하고 후추 성분 젤을 분사해 움직임 제한
- 美, 'AI 러다이트' 확산 조짐...세계 곳곳 폭력사태 속출
 - 4.14 언론은 올트먼 CEO의 자택에서 총격사건, 화염병 투척 등 AI 기술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AI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폭력 사태와 시위가 발생하는 등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
 - ※ 「러다이트 운동」은 산업혁명 직후인 1811~1817년 영국에서 섬유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기계 파괴 운동

중 동

- 레바논, “모든것이 사라졌다” 이스라엘 공격에 마을 전체 파괴
 - 4.13 언론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민가를 원격 폭파해 3개 마을을 파괴하였으며, 인권단체들은 주거 파괴는 전쟁범죄에 해당하고, 학계에서는 도미사이드*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
 - * 사람이 살고있는 집이나 마을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

아·테

○ 中, 항공기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시 강경 대응 예고

- 4.9 중국 당국은 항공기 관련 테러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강경 방침을 공식화했으며, 허위 정보로 항공기가 회항·지연 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발표

○ 드론·AI 확산으로 전쟁 양상 변화.. 전쟁 문턱 낮아져

- 4.13 언론은 드론과 AI 기술 확산으로 저비용·원격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민간인 피해와 오판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, 전쟁 수행 방식 변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전쟁의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

※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는 “자국 군대 투입 대신 ‘버튼’으로 전쟁이 이루어 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전쟁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”라고 부언

유럽

○ 독일, 뮌헨 內 이스라엘 식당 대상 폭발물 공격 발생

- 4.11 언론은 독일의 한 이스라엘 식당이 한밤중에 폭발물 공격을 받았으며, 현지 경찰 관계자는 이번 공격을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반유대주의 범죄로 보고 수사중이라 보도

※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이 최근 네덜란드, 영국 등 유럽 곳곳에서 잇따르는 이스라엘 관련 시설 테러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부언

○ 프랑스, ‘IS에 뒷돈’ 시멘트업체 경영진들 유죄

- 4.14 언론은 시리아에서 사업을 위해 이슬람국가(IS) 테러단체 자금 지원 혐의로 프랑스 시멘트 제조업체 경영진이 징역 및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, 프랑스에서 해당 혐의로 재판된 첫 사례라 보도

※ 법원은 “자금 지원은 테러 조직이 시리아의 천연자원을 장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, 이를 통해 해외 테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”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벨라루스, 민스크 지하철 폭탄 테러 사건

- '11. 4. 11 17:55경 벨라루스 민스크市 옥타브리스카야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민간인 15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
- 테러범들이 지하철 플랫폼 內 벤치 아래에 철제파편이 포함된 수제 폭탄을 설치, 퇴근시간과 맞물려 인파로 인해 피해가 극대화되었음
 - ※ 사고 지하철역은 대통령궁과 약 100m 거리에 불과, 폭발로 인해 플랫폼에 깊이 1.5m, 직경 3m 크레이터가 발생하는 등 공포감 극대
- 벨라루스 KGB는 사건 2일 만에 범인 2명을 검거하였는데, 이들은 '05년 비텟스크, '08년 민스크 시장 폭탄 테러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범행 등을 고려하여 모두 12년 사형집행
- 이들의 테러동기는 범인 조사과정에서 “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즐겁다” 라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‘개인적 쾌락 추구’로 공식 규정했으나, 극단 주의나 정치적 혼란 유발 가능성도 배제 불가

테러 상식

< 4세대 테러물결(Fourth Wave Terrorism) >

- (개요) 데이비드 라포포트가 제안한 ‘테러의 네 물결(Four Waves of Terrorism)’의 마지막 단계로 1979년 이란 혁명을 기점으로 시작된 종교 중심 테러 양상을 의미. 종교 극단주의와 성전(Jihad) 이념이 핵심 동력

구분	제1세대(1880~1920)	제2세대(1920~1960)	제3세대(1960~1979)	제4세대(1979~)
* 이념	무정부주의	반식민·민족주의	좌익 게릴라	종교 극단주의

- (특징) ① 알카에다, ISIS처럼 국가가 아닌 네트워크 조직이 주체가 되고, ② 서구 민간인 타깃으로 국경을 초월한 공격, ③ 종교적 자살 테러 양상

■ (주요사례)

- ① 9·11 테러(2001) : 알카에다의 항공기 납치, 美 국제무역센터 돌진으로 2,977명 사망
- ② 파리 바타클랑 극장테러(2015) : ISIS에 의한 동시다발 총격·자폭테러, 130명 사망